

월간양계와 함께한 8년, 독자들의 사랑 독차지



▲ 허근 원장

울산 학성고등학교 11회 졸업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35기 졸업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석사·박사학위 취득
 현, 약침학회 부회장
 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출강
 현, 제민한의원 원장
 '33인의 명의집'에 수록
 본지 '건강클리닉' 필자(2002년~현재)

월간양계는 사양·질병관리, 양계산업의 동향·흐름 등을 주로 다룬 양계인의 필독서로서 40년간 단 한 번의 결간 없이 발행되기까지는 업계관련인 및 필자들의 애착과 노고의 공이 클 것이다.

본지는 양계산업의 특정 분야를 집중 다루는 전문지이지만 맛집소개, 문화산책, 연작포트, 만화 등 다양한 재미를 다룬 지면을 통해 양계인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자로 다가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본지를 통해 소개되는 '건강클리닉'은 시간·거리상의 불리한 요건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사양가를 고려해 집에서 간단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매회 다루는 코너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금번 11월로 월간양계 창간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본지 건강클리닉을 다루고 있는 제민한의원 허근 원장을 만나보았다.

월간양계 2002년부터 인연, 8년간 기고

허근 원장이 월간양계와 동행하게 된 시점을

짚어보면 지난 2002년부터다. 당시 본회 홍보팀에서 월간양계 기자로 활약하던 직원이 진료차 서초동 소재 양계협회 사무실과 가까운 방배역 부근 제민한의원을 찾으면서 첫 만남을 가졌다. 환부 치료를 위해 수차례 방문으로 친분이 쌓였고, 직원은 말씀을 유창하게 하는 허근 원장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요? 혹시 글 쓰는 것 좋아하시나요?”라고 제안하자 흔쾌히 승낙하면서 그때부터 인연의 끈을 맺게 되었다.

당시 허근 원장은 한의학 관련 잡지인 ‘한방과 건강’ 지에 간간히 칼럼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재미와 상식을 전하고 있었고, 2002년부터 월간양계와 인연이 되면서부터 다양한 독자층이 생겨났고, 이들 중 가끔은 전화 문의로 인기를 실감한다고 전한다.

허근 원장은 사실 학의학 이전에 국문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문학 소년이었다. 학생 시절부터 학내 신문, 학회, 모임 등 글재주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집필을 맡아왔었고, 한의사가 되면서 취미로 즐길 겸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02년부터 금년 11월호까지 100여편의 글을 단 한 회도 쉬지 않고 집필하면서 실생활에서 유용한 민간요법을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한의사로서의 활동

방배역 사거리를 둘러보면 제민한의원이란 오래된 간판이 보인다. 이곳에서 20여년간 한방 의료와 보건지도에 힘을 쏟고 있는 허근 원장은 현재 경희대학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의학개론과 침구학 강의를 진행하는 등 한방에 대한 배움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후진양성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약침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문 한의사를 상대로 약침에 대한 강의도 꾸준히 진행하며 한의학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다.

남들에게 도움 주는 사람으로 남을 것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도움받기보다는 내 능력이 닿는 선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허근 원장은 “내 재주로 인해 남의 아픔을 덜어 줄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뜻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허근 원장은 몇 년 전부터 캐나다 현지인과 교민을 상대로 매년 무료로 치료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휴가철인 7~9월경 가족이 거주하는 캐나다로 떠나 휴가를 보낼 겸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민사회 일원 중 한 사람으로서 인근 공터나 여의치 않다면 가족들이 사는 집에 무료진료소를 만들어 아픈 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있다. 그 시간만큼은 일이 아닌 취미로서 즐기고 싶으며 내 능력이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지론을 내세웠다.

허근 원장은 월간양계와 동행한지 8년동안 100여편의 원고를 써왔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치료예방법을 지면에 지속적으로 소개할 것이며 월간양계와 인연을 맺으면서 축산업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주고자 노력하며, 앞으로도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을 남기면서 월간양계에 대한 애착을 전했다.

(정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